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더 소울

The Soul. 소울(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돌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다.

## 종교NEWS

### 고성발전을 위한 신앙인들의 활동

“믿음 속에 화합을 일구는 소통의 신앙, 봉사와 희생으로 지역을 거듭나게 한다”



# 아프리카 전통춤 고성땅 밟다

## 고성감리교회 초청 공연 열려 ... 탄자니아·케냐 찬양단 감동의 무대

아프리카 탄자니아 부족과 케냐 마사이족으로 구성된 찬양단이 전통춤과 찬양공연을 펼쳐 고성주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아프리카 찬양단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30분 고성감리교회에서 교회성도 및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동안 전통춤과 찬양공연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공연은 최진목 고성감리교회 담임목사가 고성지역과 해외문화교류 및 정서지원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서울 임마누엘 감리교회 해외선교부와 협의해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 중인 마몽고 현지 감독관에게 의뢰해 이뤄졌다.

마몽고 감독관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부족 13명과 케냐 마사이족 11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찬양단과 함께 고성땅을 밟았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 아리랑과 대중가요

등을 한국어로 불러 가슴 짙한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고, 낯설기만 했던 아프리카인들이 가까이 지켜보며 피부색과 관계없이 인류가 한가족임을 느꼈다.

최진목 담임목사는 “평소 고성지역에서 외국인을 볼 기회가 흔치 않고 더욱이 아프리카인은 만나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공연문화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런 기회를 만들기 쉽진 않았지만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고나서 매우 큰 보람을



지난달 29일 고성감리교회에서 열린 아프리카 찬양단 공연 모습.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문화교류를 통해 아프리카 선교 및 복음화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원광연 기자

### 종/교/단/신

#### 신교대 세례지원

0... 고성군 기독교연합회(회장 최진목)는 오는 10일 저녁 7시 22시 단 동해군인교회에서 신교대 세례 지원을 할 예정이다.

#### 노인복지회관 식사제공

0... 고성감리교회와 간성감리교회는 매주 목요일 고성군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식사를 제공한다. 식사제공은 고성감리교회가 월 3회, 간성감리교회가 월 1회 지원한다.

#### 여름성경학교 개최

0... 고성감리교회(목사 최진목)는 오는 23일과 24일 1박2일의 일정으로 2011년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한다. ‘구원 오션파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유치부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종/교/칼/럼



헤안  
반야사 주지

어느 보살(불교에서는 베품의 행을 실천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한다)이 스님께 여쭙기를, 지옥과 천당(극락)의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였다.

스님은 지옥 중생은 육체의 긴 숟가락으로 음식, 즉 밥을 떠먹어야 하는데 몸과 팔을 굽힐 수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어 굶주리고 배고픔에 고통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천당의 중생은 육체의 긴 숟가락이지만, 서로 상대편에게 밥을 떠주니 배부르게 먹고 즐겁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옥 중생은 베품이 없고, 천당 중생은 베품을 아는 것이니, 어떤 성품의 습(습관, 업)을 행함에 있느냐에 따라 지옥과 천당이 좌우된다.

즉 습에 의하여 존재하는 생명의 실체는 선과 악의 공존 속에서 변화를 겪고 생과사의 윤회를 반복한다. 과거의 습이 금생애, 금생의 습이 내생애에 이어지는 업연(습의 인연)과 육식(안, 이, 비, 설, 신, 의, 식)에 의한 식의 체다. 산 자는 눈에 보이는 몸의 행함이고, 죽은 자는 체(몸)를 떠나 보이지 않는 습의 체의 행함이다. 이 업식체는 산 자나 죽은 자나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순간 순간 본 나의 성품에 욕심, 분노, 증오, 어리석음, 미움, 원망, 배신, 공포, 불안, 두려움, 초조의 식(의식)이 그 물막이 되어 성벽이 되고 자신의 ‘참 나’를 보지 못하니 무명의 연이 되어 고뇌의 속박에서 현존의 고통의 삶을 지옥이라 함이요, 이 육식의 업식체에서 무명의 나를 떠난 즉 탐진치 삼독심을 여원

## 지옥과 천당

참나 여여함(여여함이란 베품에 인색치 않음)의 현존의 삶을 천당이라 한다.

즉 몸으로 행함에 너무 탐하지 않고 말로 행함에 욕하지 않고 의로 행함에 미워하지 않고 눈으로 행함에 분별하지 않고, 나쁜 것 좋게 보고 미운 것도 이쁘게 보고, 귀로 행함에 시비하지 않고 욕하는 소리에 화 내지 않고 증오하는 소리에 원망하지 않고, 원망 이해하고 칭찬소리 기뻐하고 남과 나를 비교 분별하지 않고 힘든 일 닦치더라도 힘들다는 생각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생각 생각 반복하다보면 즐거운 것이다.

성실과 근면 참신하게 인내하면서 지혜의 창조 실천 행을 경주하며 분별시비 버리면 공심(公心)이요 평등심이다. 이 평등심이 현존하는 현실이 천당이다. 한 생각 분별 시비 여의었을 때 공심의 세계다. 그 공심의 세계가 천당 극락이다.

2003년 10월 7일 중앙일간지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소녀

가장 혜영(가명)이의 8개월치 밀린 임대료가 777,610원이다. 6년째 모시는 80세 할아버지와 혜영이는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임대료가 없어 @겨날 뻔했다. 한 달 생활보조금 40만원인 혜영이로서는 체납금 777,610원은 엄청난 액수다. 아파트에서 체납미납자에 대한 처리 규정 때문에 2003년 6월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동년 9월 1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맡은 판사가 대신 임대료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이 알뜰시장을 열고, 아파트측은 소송을 취하려는 일이 주위에 알려졌다. 판사는 인터뷰를 거절 사양했는데, 이 판사의 베품 행위가 바로 공심이요, 아파트 주민의 알뜰시장 역시 공심이다.

사랑과 자비의 실천 보살행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사회 전체로, 나아가 세계 전체로 전도될 때의 현존세계가 바로 천당(극락)이다. 부자연스러운 나는 지옥이요, 자유스러운 나로 돌아가는 것이 천당 극락이 아닐까.